

매화사(梅花詞) | 안민영

수능완성 199쪽

안민영이 1870년(고종 7) 겨울 스승인 박효관(朴孝寬)의 운애산방(雲崖山房)에서 벗과 기생과 더불어 거문고와 노래로 놀 때, 박효관이 가운 매화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예찬한 작품이다. '영매가(咏梅歌)' 혹은 '영매사(咏梅詞)'라고도 불리운다.

매영(梅影)*이 ^{비친} 푸드친 창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겨신져
 매화 그림자(풍류의 배경) 옥같은 미인의 금비녀 비스듬히 있구나(영탄법)

매화 그림자 비친 창에 미인이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리코다
 화자를 포함한 백발의 노인

두어 명의 노인은 거문고 뜯으며 노래하
 도다

이윅고 잔(盞) 드러 권(勸)하랴 달이 쏘한 오르더라
 흥청망청히 풍류를 즐기는 분위기 달이 떠오르는 낭만적 분위기

이윅고 술잔 들어 서로 권할 때 달이 또
 한 솟아오르더라

제1수 매화와 함께 하는 풍류

- 매영: 매화의 그림자.
- 옥인금차: 옥같이 아름다운 미인의 금비녀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밋지 안얏더니
 연약하고 성글게 피어난 매화(의인화)

연약하고 앙성한 가지이기에 (어찌 꽃을
 피울까) 너를 밋지 않았더니

기약(期約) 능(能)히 직쳐 두세 송이 푸엇구나
 고통, 시련 피엇구나(영탄법)

눈 올 때 피겠다는 약속을 능히 지켜 두
 세 송이 피엇구나

촉(燭) 잡고 갓가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촛불 그윽한 향기가 은은히 떠돌→후각의 시각화(공감각적 표현)

촛불 잡고 너를 가까이 완상할 때 그윽한
 향기조차 떠도는구나

제2수 매화의 고결한 속성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은히 떠돌.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은 자질(매화) 매화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모습과 구슬처럼 아
 름다운 자질이여 눈속에 피어난 너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황혼에 뜨는 달 →매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존재

가만이 향기를 풍기며 저녁에 뜨는 달을
 기다리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매화)

아마도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를 지닌
 것은 너 뿐인가 하노라

제3수 매화의 아름다움과 절개

눈으로 기약(期約)터니 네 과연(果然) 푸엇구나
 고통, 시련 매화 영탄, 감탄

눈 올 때쯤 피겠다는 약속을 하더니 너
 과연 피엇구나

황혼(黃昏)에 달이 오니 그림자도 성기거다
 황혼에 달빛에 매화의 그림자가 흐릿하게 보임 →화자가 달과 매화에 취함.

황혼에 달이 뜨니 그림자도 등성하구나.

청향(清香)이 잔(盞)에 씻으니 취(醉)코 놀녀 흥노라
 매화의 향기→후각 후각의 시각화(공감각적 표현) 흥취에 젖은 풍류의식

(너의) 맑은 향기가 술잔에 머무니 취하
 도록 놀리고 하노라

제4수 매화와 함께 하는 유흥과 흥취

황혼(黃昏)의 뜻은 달이 너와 기약 두었더니
매화 약속하였느냐(의인법)

황혼에 뜬 달은 너와 만나자고 미리 약속하였느냐?

합리(閤裡)*에 즈든 꽃치 향기 노아 맞는고야
침실 안 피어난 꽃이 향기를 풍기며 맞이하는구나

방안에 잠든 매화가 향기를 풍기며 맞이하는구나

넌 엇지 매월(梅月)이 벗 되는 줄 몰랐던고 호노라
화자 매화와 달 벗이 되는

내가 어찌 달과 매화가 벗인 줄 몰랐던가 하노라

제5수 매화와 달의 조화

- 합리(閤裡): 쪽문 안, 방 안

보름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고통과 시련 산장의 창문→매화가 있는 집

바람이 눈을 몰아다가 산 속의 창가에 부딪히니

찬 기운(氣運) 식여 드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擄)* 허니
고통과 시련 새어 들어와 침범하다. 괴롭히다

차가운 기운이 새어 들어와 자고 있는 매화를 괴롭히니

아무리 어우려 허인들 봄꽃이야 아슬소나
(매화를) 열게 하려한들 겨울의 추위속에 봄을 기다리는 마음(화자의 소망)

아무리 열게 하려한들 새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제6수 봄을 맞이하려는 매화의 강인한 의지

- 침노(侵擄): 침범함.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침.

저 건너 나부산(羅浮山) 눈 속에 검어 옷둑 울통불통 광덕 등걸아
중국에 있는 매화 명소 고통, 시련 울통불통하게 생긴 매화나무의 등걸아(의인법)

저 건너 나부산 눈 속에 검게 옷둑 서서 울통불통하게 생긴 광대등걸아

네 무슨 힘으로 가지(柯枝) 돈쳐 꽃조 저리 피었느냐
가지가 돌아나고 꽃마저 저렇게 피었느냐

너는 무슨 힘으로 가지가 돌아나고 꽃조차 저렇게 피었느냐

아무리 썩은 반(半)만 남아슬 망정 봄꽃을 어이 호리오
썩은 나무줄기가 반만 남았다고 해도 오는 봄을 막을 수 없다(피는 매화를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썩은 배가 반만 남았다고 해도 봄의 뜻을 어찌하겠는가

제7수 늙은 매화나무의 굳은 의지

동각(東閣)에 숨은 꽃치 척촉(躑躅)* 인가 두견화(杜鵑花)* 인가
동쪽 누각 철쭉꽃 진달래꽃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쭉꽃인가 진달래꽃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여늘 제 엇지 감히 뛰리
하늘과 땅, 온 세상 고통과 시련 철쭉과 진달래 필 수 있겠는가(필 수 없다. 설의법)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 제가 어찌 감히 피겠는가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 맞게 뉘 이시리
알겠도다 겨울인데도 봄빛을 보이는 것. 눈 속에도 꽃을 피우는 건 매화뿐이다.(설의법)→매화의 절개 예찬

알겠도다,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에 매화밖에 또 누가 있겠는가

제8수 매화의 남다른 지조

- 척촉: 철쭉.
- 두견화: 진달래.
- 건곤(乾坤): 하늘과 땅, 온 세상.
-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따뜻한 이른 봄.



작품 다가가기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연시조
성격	예찬적, 영탄적, 풍류적
제재	매화
주제	매화의 절개와 생명력 예찬
의의	매화를 소재로 한 연시조

시상 전개 방식

- [제1수] 매화와 함께 하는 풍류
- [제2수] 매화의 고결한 속성
- [제3수] 매화의 아름다움과 절개
- [제4수] 매화와 함께 하는 유희
- [제5수] 매화와 달의 조화
- [제6수] 봄을 맞이하려는 매화의 강인한 의지
- [제7수] 늙은 매화나무의 굳은 의지
- [제8수] 매화의 남다른 지조

내용 요약

화자	매화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적 대상	매화
상황	매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화를 의인화하며 지조높은 선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정서	흥겨움, 여유와 풍류

표현상 특징

-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함.
-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의식을 표현하고 있음.
- **영탄법, 설의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기틀

- 2007학년도 6월 모평
- 2014학년도 9월 모평
- 2015학년도 9월 모평 (보기)

해제

이 작품은 매화를 소재로 8수로 이뤄진 연시조로 **매화의 아름다움과 지조, 절개 등을 예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매사(詠梅詞) 또는 영매가(詠梅歌)라고 불린다. 작품의 화자는 추운 겨울에 피어나는 매화의 특성과 그윽한 향기와 아름다운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는 매화를 두고 ‘너’라 칭하며 의인화를 통해 대상인 ‘매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제8수에서는 철쭉과 두견화(진달래)와 매화를 대비하여 매화의 긍정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영탄적 어조와 설의적 어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자의 개인 가집인 『금옥총부(金玉叢部)』에 수록되어 있고 『가곡원류(歌曲源流)』의 여러 이본들에 두루 실린 것으로 보아 당시 널리 향유된 노래로 보인다.

작가 알아보기

▶ 안민영(?~?)

안민영은 조선시대 후기의 서얼 출신의 가객으로 그의 스승이었던 박효관과 함께 『가곡원류』를 편찬하여 근세 시조 문학을 결산하는데 공헌했다고 평가받는다. 서얼 출신이었던 그는 출생 신분으로 인해 벼슬길이 여의치 않자,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가객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음악적으로 본래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노래를 잘 불렀으며 음악을 듣고 평가하는 데에도 재능이 있었다. 안민영은 주로 즉흥적으로 풍경을 노래하거나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매화를 주제로 한 것이 가장 많다. 「매화사」 또한 매화를 제재로 한 작품으로 그가 자신의 작품 180 여수를 당시에 연창되던 가곡의 곡조에 맞춰 편찬한 개인 가집인 『금옥총부』에 수록되어 있다.

한눈에 보기

제 1수	풍류를 즐기는 백발옹의 모습이 드러나며, ‘매화’는 배경으로 제시됨.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제시하고 매화에 주목하게 하는 일종의 서사 기능을 함.
제 2수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의 고결한 성품을 예찬함.(의인법 사용)
제 3수	‘매화’를 아름다운 여인에 비유함.(의인법 사용) ‘빙자옥질’과 ‘아치고절’은 매화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시어임.
제 4수	매화는 신의를 지켜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강인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달’과 ‘술잔’은 매화를 즐기는 흥취를 더해주는 역할을 함.
제 5수	달과 매화의 어우러짐(조화)을 달과 매화가 약속이라도 한 듯하다고 표현함. 이러한 달과 매화의 어우러짐을 종장에서는 ‘벗’으로 표현함.
제 6수	‘눈보라’나 ‘찬 기운’은 매화가 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시련을 의미함. 이런 시련 속에서도 꽃을 피워 봄을 전하는 ‘매화’를 선구자적인 정신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함으로써 매화의 절개를 예찬함.
제 7수	‘광대등걸’은 시적 대상으로 ‘오래된 매화나무’로 볼 수 있음. 초장의 ‘나부산’이 중국에 있는 산임을 고려할 때, 광대등걸은 화자가 실제 보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념 속 대상임.
제 8수	철쭉, 진달래꽃과 달리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꽃은 오로지 매화밖에 없다고 함으로써 매화에 절개, 지조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예찬함.

▶ 매화에 부여된 의미

「매화사」는 선비들이 군자(君子), 즉 덕(德)과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에 비유한 사군자(四君子) 중의 하나인 매화에 ‘절개’ 나 ‘지조’라는 관습적 상징을 부여하고 이를 인격화하여 지조높은 선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작가 자신의 우아하고 고절한 성품과 정서를 투영하여 표현함으로써 주체인 작가와 객체인 매화가 하나된 몰아일체(物我一體), 주객일체(主客一體)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 「매화사」 속의 매화의 이미지

전체 작품을 살펴 봤을 때 「매화사」의 모든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매화는 만개한 상태가 아니다. 각 작품에 등장하는 매화의 이미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수	매영(梅影) - 매화의 그림자
제2수	어리고 성긴 매화
제3수	눈 속의 매화
제4수	성긴 매화 그림자
제5수	합리에 자든 매화
제6수	자든 매화
제7수	광대 등걸
제8수	동각의 숨은 꽃

‘어리고 성긴 매화’라는 표현에서 보듯 안민영은 만개한 꽃보다는 갓 피어난 매화가 드러내고 있는 의미에 더욱 주목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즈는 매화’나 ‘숨은 꽃’의 이미지 역시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존재가 아니 라 그것을 아는 제한된 상대에게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한 매화를 보고 예술적 감흥을 느낄 수 있었던 작자의 심미안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작품의 부기(附記)에서 밝혔듯이 이미 작품 창작의 동인이 방안에서 갓 피기 시작한 매화이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작품 속의 매화가 비록 나약한 존재일지 모르나 한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곳곳하게 피어나는 매화의 생명력에 주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매화의 생명력은 곧바로 희망을 상징하는 봄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작품 내부에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매화의 이미지를 적절히 배분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작품의 내용으로 본다면 매화사 제 6수 까지의 6수만으로도 이미 방안에 피기 시작한 매화를 통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소재를 끌어다 앞의 작품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창작 수법은 가곡 연창이라는 음악적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매화사는 노랫말과 악곡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 하나의 연시조로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창작 원리는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연시조를 지을 때의 그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하겠다.

▶ 「매화사」속 전고의 사용

매화와 달의 관계는 중국 송나라 때 시인 임포(林逋)의 「산원소매(山園小梅)」라는 시에서 유래했다. 임포는 학문이 깊고 명성이 높았지만 벼슬도 마다한 채 결혼도 하지 않았다. 임포는 처자가 없는 대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초당 주위에 수많은 매화 나무를 심어 놓고 학을 기르며 살았다. 그는 학이 나는 것을 보고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포를 두고, ‘매화 아내에 학 아들을 가지고 있다(매처학자, 梅妻鶴子)’고 하였다. 그의 시풍은 맑고 담백하여 송시(宋詩)의 선구(先驅)라고 한다. 매화시인(梅花詩人)으로 불릴 정도로 매화를 노래한 작품에 걸작이 많이 있는데 그 중 대표작이 바로 ‘산동산의 작은 매화’라는 뜻의 「산원소매(山園小梅)」다.

「산원소매(山園小梅)」1수

衆芳搖落獨暄妍(중방요락독훤연)

占盡風情向小園(점진풍정향소원)

疎影橫斜水清淺(소영횡사수청천)

暗香浮動月黃昏(암향부동월황혼)

뭇 꽃들 시들어 모두 졌는데 홀로 선연히 피어

조그만 정원의 풍정을 독차지 하였구나

성근 가지의 그림자는 맑고 얇은 연못에 비스듬히 비치고

그윽한 향기 달 뜬 황혼녘에 아련히 피어오르네

세 번째와 네 번째 행에 나오는 ‘매화와 달’의 조화가 이후 매화꽃을 감상하는 결정적인 지침이 되었다. 줄여서 ‘소영암향(疎影暗香)’, 또는 ‘암향소영(暗香疎影)’, ‘암향소영월황혼(暗香疎影月黃昏)’이라고도 하는데 매화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인다. 달빛에 비치는 꽃모습이 정결하고 흰해서 ‘옥조(玉照)’라고도 했다.



깊이 이해하기

심화 학습

▶ 연시조로서의 「매화사」의 의의

연시조는 사대부 시인들의 정신세계와 미의식을 담아내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널리 수용되어, 우리 시조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해 왔다. 그렇지만 이들 연시조는 사대부 지식인의 이념과 정서적 욕망 표출을 위한 문학적 형식으로서의 적절했지만, 가곡 연창을 위한 음악적 형식으로서의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 음악적 형식으로서의 가곡이 3장의 단련형태로 완결되는 단시조를 엮어 부르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연을 한 단위로 하여 완결되는 연시조를 한꺼번에 엮어 부를 수 있는 형식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16, 7세기에는 가곡의 연창구조가 비교적 단순했다. 그리하여 같은 곡을 거듭 반복하든 한두 곡으로 문창(交唱)하든 간에, 문학적 형식과 음악적 형식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가 연시조를 향유하는데 크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상층 지식인의 문학적 욕망표현에 적절한 형식으로서 형성,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가곡의 연창구조와 관련된 고도의 음악성을 구현하는 따위에는 크게 구애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18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가곡의 연창이 고도의 세련된 음악성을 요하게 되면서, 연시조의 향유도 앞선 세대와는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곧 18세기 이후 가곡이 대악곡 중심의 복잡하고 정제된 짜임새를 갖추며 발전해 나가자, 가곡의 연창형태는 연시조의 연행을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17세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연시조가 18세기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위축되어 작품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 가곡 한바탕의 연창방식을 주도해 나간 객시인들의 작품에 연시조가 한 편도 발견되지 않는 현상 등이 우연일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18, 9세기 연시조의 처지는 형식의 해체를 통해서나 겨우 가곡 한바탕의 연창에 편입될 수 있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8곡을 한바탕으로 하여 부르도록 편성되어 있는 「매화사」가 재평가되어야 할 형식사적 의의는 여기에 있다. 적어도 안민영은 18, 19세기의 어느 가객도 생각지 못했던, 문학적 형식과 음악적 형식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일어난 연시조의 이러한 사정과 문제점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8연의 「매화사」 형식은 곧 이런 문제점을 깊이 직시하고, 음악적 형식과 문학적 형식의 완벽한 일치를 통해 가곡 한바탕의 전통 안에서 연시조의 향유기반을 새로이 구축하려는 의욕적 시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민영이 행한 「매화사」의 형식실험은 연시조의 향유기반 구축을 통해 전대에 누렸던 연시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길을 마련했다는 정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어떤 의미에서 형성단계에서부터 안고 있었던 음악적 형식과 문학적 형식의 불일치라는 연시조의 이 해묵은 과제가 수백년이 지난 안민영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곡창으로서의 「매화사」의 특징

이 작품이 모두 8수로 짜여진 것은 우조(羽調) 8곡을 한바탕으로 하여 부르는 가곡창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초삭대엽 - 이삭대엽 - 중거 - 평거 - 두거 - 삼삭대엽 - 소용(騷翁) - 우룡(羽弄)'의 악곡에 맞춰 8연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형식은 모두 평시조를 취했으나 제7연만 사설시조로 되었는데 그것은 그 곡이 사설시조를 주로 부르는 소용이란 악곡에 엮어 부르기 때문이다. 작품의 구성은 이러한 악곡적 짜임의 분위기와 긴밀한 관련을 보이는데, 즉 ① 1연(초삭대엽) - ② 2~5연(이삭대엽계 : 중거 · 평거 · 두거는 이삭대엽의 19세기 파생곡임) - ③ 6연(삼삭대엽) - ④ 7~8연(소용·우룡)의 4단으로 되어 있다.

①에서는 원경(遠景)을 노래하되 밖에서 방안을 들여다보는 형식으로 진술되며, 매화, 여인, 백발옹, 거문고, 노래, 달, 술잔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다.

②에서는 시점이 원경에서 근경(近景)으로 바뀌면서 진술의 초점이 매화 자체에 모아진다. 그러면서 '눈 속에 피는 매화', '매화 향기 속의 달'을 묘사하되 가장 조화롭고 아정(雅正)한 사설을 엮어 부르는 곡에 어울리게 소박한 정서적 경이의 표현으로 그려 놓았다.

③은 ②에서 ④로 넘어가는 중간고리 역할을 한다. 즉 방안의 매화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②쪽으로 연결되면서 한편으로 독백체의 진술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④와 연결되는 진술 패턴을 보인다.

④에서는 시점이 방안의 매화에서 밖의 매화로 이동하여 노래하는 변화를 보인다. 매화에의 애절한 사랑이 의식의 확산을 통해 밖의 매화로 확대되고 눈 속의 매화의 봄뜻을 기리는 소망을 잘 표현해 놓았다. 묘사와 미적 짜임이 뛰어나 작자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OX로 확인하기

- ❶ 이 작품은 의인화의 기법을 통해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과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 ☐ X ☐
- ❷ 제 1수에 나타나는 ‘백발옹’은 매화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 ☐ X ☐
- ❸ 제 3수의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 ☐ X ☐
- ❹ 제 6수의 ‘봄 뜻’은 매화를 당대의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 ☐ X ☐
- ❺ 제 8수의 ‘척촉’과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 ☐ X ☐

정답 ○, X, ○, X, ○

정답 해설

- ❶ 이 작품은 매화를 의인화하고 있는데 ‘너’, ‘네’, ‘기약 지켜’ 같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빙자옥질’, ‘아치고절’ 등의 구절에서 매화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❷ 제 1수에 나타나는 백발옹은 흰 머리칼을 지닌 늙은이라는 뜻으로 매화를 바라보며 즐기는 화자를 의미한다.
- ❸ 이 작품에서는 자연물인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면서도 절개나 지조 등의 규범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❹ ‘봄 뜻’은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지조’나 ‘절개’로 이해할 수 있고, 심미적인 태도로는 ‘겨울임에도 핀 아름다운 꽃’으로, 풍류적 태도로는 ‘겨울에도 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의 이념에만 국한하여 감상해야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❺ ‘척촉’은 철쭉꽃을, ‘두견화’는 진달래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봄에 피는 꽃이다.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매화’와는 대조되는 존재이다.

함께 볼 작품

『매화시첩』, 이항

- 이항(李滉)은 62제목에 91수의 매화시를 남기고 있다. 그의 『매화시첩』은 우리나라 문학사상 최초의 자작 자필로 된 단일 소재의 한시집이다. 이항은 매화를 자신이 추구했던 이(理)의 세계의 ‘깨끗하디 깨끗하고 맑디 맑은’, ‘청진’의 상징으로 보았다. 『매화사』와 마찬가지로 매화에 대한 예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유사하다.

『사미인곡』, 정철

-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에서 은거할 때 지은 가사로 여성 화자의 독백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정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이다. 이 작품 속에도 매화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로 삼아 화자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매화를 소재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매화사』와 유사하다.